軀가 日帝時 公州山城에서 出土되어 日人 輕部氏의 所藏이 되었다。(同氏著「百濟美術」圖版參照)

廣州郡 西部面 草一里 石佛立像

鄭 永 鎬

千戶洞을 지나 廣州郡 西部面 新場里에서 下車하여 春宮里로 가는길 約七〇〇m地點 右便에 法洞이라는 마을이 있고 이 곳에서 北쪽으로 가면 草一里인 바 그 中途인 사리재(寺里峴)에 佛像一軀가 遺存하고 瓦片이 散在하나 洞民들은 寺址라고만 말할 뿐 寺名은 不明하다。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書(廣州條)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註)에 이 石佛에 對한 記錄이 있으나 筆者가 六月 十八日 再調한 바 있기에 紹介하려한다。사리 고개를 넘어 草一里로 내려가는 언덕 왼편에 位置한 이 佛像은 腰部 以下가 埋沒되어 있어 筆者는 同好數名과 發掘調査하였다。



花崗岩에 浮彫한 이 石佛은 光背를 갖고 正面直立하였는데 兩肢가 缺失되고 腰部까지만 現存한다。螺髮의 頭頂에는 比較的 작은 肉髻가 있고 眉間에는 큼직한 白毫孔이 있으며 兩耳는 길고 三道가 있다。顔面이 몹씨 破損되어 코와 입은 알 수 없으나 兩眉目의 痕跡은 어렴풋하다。右肩偏袒한 衣紋은 腰部로 내려져 左腕에 걸쳐 흘렀다 右腕은 들어 왼쪽 가슴에 올렸고 第一、二指로 가볍게 寶珠를 쥐었는데 그 曲線이 流麗하다。光背는 二重輪光形으로 頭身光을 區劃하였으나 彫飾은 없다。이 佛像은 비록 相好와 身部에 많은 破損을 입었으나 顔容 및 衣褶 等의 彫法으로 보아 高麗初期의 佳作으로 推定되었다。露天에 있고 더우기 破損이 극심한 點으로 보아 保護策이 期待된다。實測値는 全高 二m 身高 一七〇cm 肩幅 五五cm 胸幅 三一cm 光背上幅 一〇三cm 下幅 一一五cm

安城의 石佛

鄭 明 鎬

六月 十七、八兩日間 京畿道 安城郡의 佛敎遺跡과 遺物에 對한 調査를 通하여 새로히 注目된 塔像中 石佛만을 記錄하여 두겠다。(參加者 黃壽永、崔成鳳、申榮勳、筆者)

(1) 安城邑 公園內 石佛坐像(寫眞)：元來 竹山梅谷里 寺址에서 日帝時 搬出된 것이라 한다。佛身은 蓮花臺上에 結跏趺座하고 兩手는 後補나 智拳印을 結한 듯하며 右肩偏袒으로서 佛頭는 補修되었는데 兩膝端이 三角形을 이루고 있는것이 特異하다。蓮花臺座는 竿石을 얇고 上下臺石만 重疊되어 있는데 上臺蓮瓣內에는 四葉紋을 裝飾하였다。光背는 舟形이나 二重輪光形으로서 頭

